캐나다 레스토랑 습격… 방생 때문?

"방생은 연민행위" VS "생태 균형 무너져"


한 스님이 바닷가재(랍스터) 270kg를 방생한 뒤 불자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이 습격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출처=CBCNews

한 스님이 바닷가재(랍스터) 270kg을 방생한 뒤, 불자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대한 애꿎은 습격 사건이 발생했다.

캐나다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주 샬롯타운 경찰은 7월 11일(현지시간) "누군가 '샬롯 스플렌디드 에센스 레스토랑'의 울타리와 지붕 위 화단과 우편함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 당국은 전날 스님들의 방생법회와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날 대각불교연구회(The Great Enlightenment Buddhist Institute Society, GEBIS) 스님들은 CBC취재진과 함께 방생을 위해 대서양으로 향했다. GEBIS스님들은 캐나다 곳곳을 돌아다니며 우리 돈으로 320만 원 정도(한 마리 1만2000원 기준)의 바닷가재 270kg을 사들여 대서양에 방생했다.

방생에 앞서 스님들은 바닷가재들을 깨끗한 물에 씻긴 뒤 20분 동안 자비심을 담는 불교의식을 치렀다. 스님들의 이러한 방생은 언론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다. 당시 단 스님은 "가재뿐 아니라 벌레, 파리 등 어떤 동물도 방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모든 생명은 존귀하다"고 말했다.

이번 레스토랑 습격 사건에 대해 제프리 GEBIS 대변인은 "범인이 레스토랑을 습격한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주인에게 피해를 준 것 같아 유감"이라며 "레스토랑 주인 케조우 루 씨가 불자인 것은 맞지만 GEBIS 소속 신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습격당한 레스토랑이 위치한 빌딩은 GEBIS와 공동사업을 펼치고 있는 비영리단체 월광재단(Moonlight Foundation) 사무실도 위치해 있다.

한편 방생은 2000년 전부터 전해진 불교의 오랜 관습이지만, 최근 야생동물 서식지의 생태균형을 어지럽힐 수 있단 논란이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다. 캐나다 뿐 아니라 지난해 영국해양관리기구는 "영국 남부 브라이튼 지역 승려들이 외래종인 캐나다 바닷가재와 다때은행게(Dungeness crab) 등을 방생해 심각한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고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영국 당국은 "외래종을 유입시켜 지역 생태계를 위협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정작 용의자에 대한 단서는 찾지 못했다.

이후 지역 어류상인이 "승려들이 나를 찾아와 방생의식에 사용될 토종 게와 바닷가재 200여 마리를 약 2000파운드(약 350만원)에 구매했다. 이들이 외래종 갑각류들 또한 구입한 뒤 바다에 풀어 준 것으로 보인다"는 증언에 따라 승려들이 사건에 연루됐단 주장이 제기됐다.

이밖에도 2012년에는 국제 인권단체와 미국불교연합까지 나서 방생이 야생동물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흑백갈등' 휩싸인 美… "분열 멈추라"

미국 불교계, 미국 달라스 총격사고 애도



미국 달라스 경찰 5명이 저격범의 총에 의해 사망한 가운데 경찰들이 용의자를 체포, 사살했다. 사진출처=PBS Newshour

경찰 5명이 사망한 미국 텍사스 주(州) 달라스 총격사고에 대해 미국 불교계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다. 또한 불교계는 미국 시민사회계에 "모든 인종의 생명은 소중하다"는 평등 정신을 주문하고 나섰다.

불교전문지 'Lion's roar'은 7월 12일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앨턴 스털링(Alton Sterling)과 필랜도 캐스틸(Philando Castile)이 백인 경찰이 쏜 총에 의해 사망한 후, 이에 보복한 흑인계가 경찰 5명을 총살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며 "불교계 인사들은 개인 SNS 계정 또는 공식석상서 이에 대한 애도를 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불교교회(Buddhist Churches of America)장인 코도 우메즈(Kodo Umezu) 스님은 7월 11일 "최근 불거진 폭력과 보복폭력 사건은 매우 비극적인 일"이라며 "부처님께선 '만인은 평등하다'는 사상으로 일체중생을 차별치 않으셨다. 이는 현대사회에 만연한 남녀 · 인종 등 차별에 경종을 울릴만한 가르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도 스님은 "차별은 인간의 더러운 마음서 비롯된다"며 "인종차별 없이 서로를 겸손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정토세상을 얻을 것"이라 말했다.

워싱턴 D.C 내면명상커뮤니티(Insight Meditation Community of Washington)장 루스 킹(Ruth King)은 흑인 희생자들에 대해 '가족'이라 칭하며, 미국 사회서 흑인들의 고충을 성토했다. 루스 킹은 "(흑인인) 나 역시 때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과 압박을 받아왔다"며 "나는 내 자식들이 '까만 몸'으로 살아가는 데 얼마나 위협을 받는지, 또 내가 그들을 언제까지 보호할 수 없단 사실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진다. 부디 인종과 관계없이 모두가 고통을 느낀단 사실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경찰이 쏜 총에 의해
흑인 남성 2명 잇단 사망
보복성 사건에 갈등 확산
"겸손하고 서로 배려하라"

또한 캘리포니아 주(州) 우드에이커 시에 위치한 '영혼의 바위 명상센터' 신도 일동은 7월 11일 "흑인 및 경찰 희생자를 모두 추모하며, 유가족들에겐 가족 잃은 슬픔에 위로를 전한다"면서 "미국 사회는 더 이상의 분열과 분노를 멈추고, 슬퍼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라"고 촉구했다.

현재 미국은 흑인과 백인 간 보복성 총격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며 심각한 분란이 초래되고 있다.

7월 5일(현지시간) 미네소타 주의 한 편의점서 CD를 팔던 흑인 남성이 경관 2명에게 제압되는 과정서 총에 맞아 숨졌으며, 이튿날엔 루이지애나 주에서 차량 검문을 받던 흑인 남성이 면허증을 찾던 도중 사살됐다.

이에 반발한 흑인계는 7월 7일 달라스 시청 800m 떨어진 지점서 거리행진을 하는 등 항의 시위를 열었다. 이 과정서 매복 총격범 4명이 백인 경찰들을 조준 사격, 6명이 부상당하고 5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 당국은 7월 8일 "미국 달라스 경찰이 폭발물을 탑재한 폭탄 로봇을 이용해 총격 사건 용의자 마이카 제이비어 존슨(25)을 사살했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3명은 현장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레드불, 보로부드르서 광고 촬영… 국민들 '공분'

익스트림 스포츠 '파쿠르' 영상 경내서 찍어 공식 사과


에너지드링크 업체 레드불(Red Bull)이 세계 최대 불교유적지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인도네시아 보로부드르 사원에서 위험천만한 곡예 영상을 찍어 논란에 휩싸이자 공식 사과를 했다. 사진출처=tribunnews

에너지드링크 제조업체 '레드불(Red Bull)'이 세계 최대 불교유적지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인도네시아 보로부드르 사원서 위험천만한 곡예 영상을 찍어 논란에 휩싸이자 공식 사과를 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7월 1일(현지시간) 레드불은 "당국의 사전 허락을 받지 않고 보로부드르 사원에서 영상을 찍은 것에 사과드린다"라며 일간지 광고를 통해 사과를 표명했다.

영상에는 익스트림 스포츠인 '파쿠르(프리러닝)' 전문가들이 1,300년 전 세워진 불탑 옆면을 박차고 몸을 띄우는가 하면, 불탑 꼭대기에 올라가 동료와 음료수 캔을 주고받는 등 상식을 의심케 하는 장면이 다수 포함됐다. 또한 파쿠르 전문가는 영어와 인도네시아어로 'No Climbing(올라가지 마시오)'이라고 쓰인 표지판 앞을 지나가는 장면도 포착됐다.

보로부드르 보전 당국의 마시스 수토포는 "레드불 측이 경비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원에 몰래 들어와 영상을 촬영했다"며 "그들은 경비원들의 감시를 틈타 촬영한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레드불은 그 영상을 지난 3월 18일 온라인으로 송출, 인도네시아 국민들을 공분케 했다. 불교신자들은 "성지 모독과 다름없다"는 반응을 나타냈으며, 여론에 따라 인도네시아 당국은 레드불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준비 중이었다.

이에 레드불은 즉각 해당 영상을 삭제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로부드르 사원에 물리적 훼손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소송을 중단했다.

대신 레드불은 현지 일간지에 사과 광고를 내고, 종교적 유적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했다.

인도네시아 교육부의 힐마르 파리드는 "우리는 이 유적을 보호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레드불 측에 성지를 보호하는 내용의 동영상 촬영을 요청했다"면서 "이번 사건이 본보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명상 중인 승려 뇌파 연구 '화제'

캐나다언론 'KelownaNow'는 7월 9일(현지시간) "빅토리아대학서 신체운동학을 공부 중인 브리지 보드리(23)가 최근 네팔서 명상 중인 티베트 스님들의 뇌파 연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브리지 씨는 "뇌전도측정기구를 활용한 이번 연구를 통해 명상 초보자인 스님과 숙련자인 스님들 사이의 뇌파를 비교, 집중력 차이를 밝혀낼 것"이라 밝혔다. 연구결과는 이번 달 내 발표될 예정이다.

박아름 기자 · 사진출처=myuviclife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염주세트(10㎜) 30,800원 (무료배송)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주문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